

‘암탉이 울어야 나라가 산다’ 고 외치는 경제·경영서들

여성 고유의 지도자적 능력 강조...
여성의 사회참여 열기 반영해

최근 서점가에는 21세기형 여성지도자의 자질을 다룬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이 근력(근력)으로 상징되는 산업화시대에서 섬세한 정보 네트워크 시대로 넘어왔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또한, 여성의 유연한 사고와 부드러운 관찰력이 경제를 이끌어갈 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다.



최고경영자는 이제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34만 사업장 가운데 여성이 대표인 곳이 9,700여곳에 이른다. 만명에 가까운 여성 CEO가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서점가에는 여성 CEO들의 경영 노하우를 소개한 책들이 쏟아져 나와 그 '여장군'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이들 책의 특징은 한결같이 21세기가 여성들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점이다. 또

‘경영’이나 ‘경쟁’과는 거리가 멀었던 여성들의 ‘정서’ ‘인간관계’ ‘사고방식’ 등을 당당히 지도자의 덕목에 포함시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남성들의 ‘게임 룰’을 익혀라

가장 먼저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성공한 여성이 손수 들려주는 이야기다. CNN의 부사장 게일 에반스가 쓴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공경희, 해냄)는 이 방면의 물꼬를 튼 책으로 지난해 7월 출간돼 현재까지 17만명이

읽은 베스트셀러다.

이 책의 강령은 ‘게임의 룰을 배워라’다.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조직에서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기업제도와 관행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상사의 ‘NO’라는 대답을 한정적인 부정으로 간주하지만 여성들은 전면적인 거부나 패배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에반스는 “경기규칙을 모른 채 운동경기에 임할 수 없는 것”은 상식 아니냐고 여성들을 짐짓 ‘공

“평범한 여성들의 평범한 성공을 담았어요”

《대한민국 여자가 아름답다》 펴낸 김미영씨



김미영씨(33, 자유기고가)가 펴낸 《대한민국 여자가 아름답다》(삼각형북스)는 국내 여성 CEO들의 성공담을 담았다. 김씨는 이 책에서 IT산업 분야와 일상생활용품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14명의 여성 경영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취재해, 그들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고난극복 사례를 생생한 육성으로 들려주고 있다.

—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남 앞에 드러내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보고 배운 선례가 없으니 섣뜻 나서지 못한다. 우리 사회가 소심하게 만든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

— 어떤 점에 초점을 맞췄나.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책들과 차별화하려고 노력했다. 대부분의 책들이 여성들을

이상화하거나, 그들의 성공비결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하지만 이 분야의 책을 읽는 독자는 대부분 평범한 젊은 여성들이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우리 주변의 평범한 여성 경영자들의 삶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 이 책에 소개된 여성 CEO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대부분 자기 전문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착실한 경험을 쌓았다. 결코 운이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도전의식, 과감한 결단력이 있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 아이디어 창출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21세기와 여성은 어떤 함수관계에 있나.

“20세기가 대립과 갈등의 역사였다면 21세기는 화합과 조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남성 특유의 조직력보다는 여성의 창의력과 유연성이 훨씬 비중있게 평가받는 사회가 된 것이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에 비해 꼼꼼하고 성실하며 어떤 면에서는 독하다. 여성의 이런 특징이 우리의 기업문화에 접목된다면 국제적으로도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강성민 기자

박' 하며, 오늘날의 기업구조에서 성공하려면 여자도 남자처럼 유머 감각을 기르고, 때로는 사기꾼이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여자처럼 승리"하라고 강조한다. 섬세한 일처리가 자신의 장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남자처럼...》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식의 교훈을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준다면 《뉴프론티어 여성기업가들의 성공 전략》(문원택 외, 노보컨설팅)은 새로운 리더형에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저자들은 '유리천장'의 신화를 깨고 최고경영자가 된 여성들을 통해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본질을 탐구한다. 흑인이란 이유로 취업을 거절당한 뒤 자기 사업을 시작한 릴리안 링컨, 미국 최대의 여행사를 창업한 글로리아 보헨, 재벌가의 막내딸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편안한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업을 일으킨 김성주 등 6명의 사례가 소개된다. 저자들은 여성기업가의 성공요인으로 융통성·준중·공평성·열린 마음·사람중시 등을 꼽고 이는 곧 디지털시대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한다.

'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백만장자가 된 여성들의 특별한 원칙》(베티나 플로러스 외, 김양미, 씨앗을뿌리는사람)은 여성들에게 돈에 대해 자유롭게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조언한다. 부를 쌓기 위한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방법에서 돈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자기 사업을 일구는 법, 돈을 현명하게 절약해 투자자금을 마련하고 불리는 법, 자기 자신을 홍보해 사업기회를 잡는 법, 또한 그 부를 현명하게 누리는 법까지 자상하게 가르쳐준다.

《여성 CEO들의 새로운 성공법칙 10가지》(수잔 에이브럼스, 김영신, 여성신문사)는 성공이란 관문을 공략하기 위한 '수험서'다. 다양한 분야의 여성 45명과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을 위한 '정답'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 정답이 열정을 가져라,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직하게 평가하라 등 지나치게 뻔한 항목들이다. 물론 다양한 여성들의 사례란 점, '핵심체크' '에피소드' '상황연습' 등을 통한 짜임새 있는 구성은 이 책의 장점이다.

《위대한 CEO 엘리자베스 1세》(앨런 액슬로드, 남경태, 위즈덤하우스)는 작년 10월경 예수나 부처의 경영법을 다룬 역사경영서가 유행할 때 함께 나와 화제가 됐던 책이다. 이 책은 엘리자베스 1세의 시련과 영광을 리더십 항목별로 묶어 136가지의 교훈으로 풀어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한 때 반역죄로 몰려 처형될 뻔한 적도 있지만 특유의 기지로 이를 헤쳐나간다.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1세의 감성적 상상력이다.

대중의 취향 읽어내는 여성 특유의 감각

《i-모드 사건》(이상욱, 김영사)의 지은이 마쓰나가 마리는 《포춘》이 선정한 아시아의 최고 비즈니스 우먼이다. 그녀는 'i-모드 개발기'로 일본을 '모바일 최대 강국'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하지만 이 책이

“여성경영자 탄생은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

씨앗을뿌리는사람의 장익순 대표

여성 CEO 관련서적 붐은 시대 변화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백만장자가 된 여성들의 특별한 원칙》을 출판한 씨앗을뿌리는사람의 장익순 대표(43)는 여성 CEO들의 탄생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1980년대에 페미니즘 시대가 열렸다면, 1990년대 들어 여성들은 실질적인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전공 및 사회진출 분야도 다양해졌죠.

여자와 사업을 연결짓는 것을 터부시하던 사회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대표는 여성들이 IMF 이후 가정경제의 부담을 전면적으로 안게 되면서 돈과 돈벌이에 대한 생각이 급속도로 변했다고 본다. 돈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수동적 입지에 놓여 있던 과거와는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IT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아직 거대한 ‘음지’입니다. 3D업종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여성들이죠. 이들은 모두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대표는 여성들이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 싶어 성공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손을 뻗는다고 말한다.

“남성중심의 기업구조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도 아직 지배적입니다. 일부 성공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대부분의 평범한 여성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성공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남성들의 소아적인 피해의식”이라고 일축한다. 장대표는 앞으로도 여성들의 성공을 담은 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성민 기자



소개하는 마쓰나가는 인터넷이나 이메일에 익숙하지 않은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이라 충격을 준다. 그녀가 일반 여성들과 달랐던 것은, 대중의 취향을 동물적 감각으로 읽어내고 그것을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 구체화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역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일본은 원래 ‘모바일’에 강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먹밥이라든지, 도시락 등도 생각해보면 모두 ‘모바일성’이 뛰어난 상품들이죠”라고 답변하는 부분은 그 천부적 감각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여자가 아름답다》(김미영, 삼각형복스)에도 평범한 여성들이 등장한다. 화장품 전문회사 ‘클리오’의 한현옥 사장을 포함해 이 책에서 다룬 여성 CEO 14명의 성공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다. 그저 자기 분야에서 고만고만하게 자리잡았을 뿐이다. 이들의 성공비결은 특별하지 않다. 덜 먹고 덜 쓰고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채 독한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했을 뿐이다. 취재형식으로 소개된 그녀들의 삶은 한마디로 ‘고생담’이다. 이 책은 번역서를 통해 소개된 ‘파란 눈’ 여성들의 성공에 진력나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기업환경이 우리 실정에 들어맞지 않아 신뢰가 가지 않았던 독자들에게 큰 설득력을 발휘할 듯하다. — 강성민 기자